

구례군, '큰 산 아래 사람들' 과거사진전

흔레·품앗이·울력·화전놀이·장터씨름·약수제 등 옛 사진 전시 다양한 볼거리·감성여행 공간 마련

구례군은 '큰 산 아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지리산역사문화관 내 구례의 옛 모습을 재현하는 기획사진전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주민들의 일상의 삶을 나타낸 스토리를 담아 '함께 즐기고, 함께 일하고' 라는 콘셉트로 옛 흔레, 품앗이, 울력, 화전놀이, 장터씨름, 약수제 등 모습과 50년대 학교 교육 및 옛 농업 활동 사진 등 다양하게 구례의 옛 사진들이 전시했다.

그때 그 시절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체험용 소품으로 광주리, 키, 작두 펌프, 물레, 절구통, 재봉틀, 호풍불 등을 함께 전시대에 배치하고, 방문객들이 실루엣을 따라 재밌는 포즈를 취하며 직접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포

토존을 설치하여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추억의 레트로 감성을 자아낼 수 있는 학교교실 및 교복체험 공간과 통학 버스를 연상한 그 옛날 여객버스를 연출하여 소소한 일상, 학창시절과 놀이의 모습을 담아낸 과거사진 속에서 함께했던 순간들을 다시 느껴보고 회상하면서 또 하나의 추억을 담아가는 전시회로 구성했다.

전시관을 돌아보고 난 뒤 관람객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벤트로 캡슐 안에 다양한 메시지를 뽑을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힐링 체험의 기회와 '10년후에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그 시절 감수성으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리산역사문화관은 3개관으로 운영되며, 제1관 기획전시동, 제2관 상설전시동, 제3관 체험전시동으로 배치되어 있다.

지리산역사문화관은 옛 추억을 그리는 생활소품 활용, 학교모습 재현 및 교복체험 등 복고주의 감성으로 다양한 여행가를 유치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전달체계 연구 나섰다

농촌형 보건복지전달체계 모형 구축 위한 기초 마련

지난 8일 곡성군이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보건복지전달체계강화사업사업 성과분석 및 효과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곡성군 이상진 부군수와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김남희 정책연구팀장, 전남과학대 사회복지학과 박봉정 교수,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재훈 센터장 등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으로 진행될 연구 용역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팀은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곡성군 다림돌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체계 구축, ▲곡성군 다림돌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 측정, ▲농촌형 보건복지전달체계 모형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 등 세부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림돌(다함께 드림 돌봄공동체) 복지사업에 대한 성과와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곡성군은 올해 8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전달체계강화 시범 공모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2022년 12월까지 다림돌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은 2천 2백만 원의 투입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보건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거쳐 2022년 2월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림돌 복지사업은 분절된 보건복지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안내 제공기반 구축, ▲서비스 제공·사후관리 등 보건복지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책임 강화, ▲복지·건강 등 국민의 욕구를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대응, ▲서비스 중복지 제공·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최소화하는 제공체계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은 다림돌 사업을 통해 농촌형 보건복지전달체계의 표준 모형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올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복지 담당 부서 내 곡성군회 망복지지원단(TF)을 발족했다.

통합적이며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 전달체계를 복지행정 분야와 복지서비스 분야로 나누는 조직개편을 실시한 것이다. 또한 11개 읍면에는 원스톱 복지서비스 "다림돌사랑방"을 만들었다. 전 주민이 복지공동체에 참여하고 모두 함께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곡성군회망복지지원단(TF)은 보건복지부 내 각 부서 간 복지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업무도 통합한다. 이를 통해 주민의 복지욕구에 맞는 초기 상담, 계획,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주민 중심의 보건복지전달체계 혁신을 위해 우리 군이 먼저 농촌형 복지전달체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 기자

나주시, 이창동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 도전 나서

나주시가 영산포 지역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주시는 지난 8일 전자 이화실에서 '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 용역보고회'를 갖고 해당 공모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 지역은 △불량도로(4m미만 도로)에만 접한 주택비율이 50%이상 △30년 이상 노후 주택비율이 50%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9% 이상 등 2개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선정 시 4년 간 국비 30억 원 지원받는다.

시는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영산포 지역 관문인 영산대교에서 이창동으로 이어지는 경사면과 노후산 밑 골목길 정비 등을 통해 주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본격 활동...사업 내실화

조성 실행계획 모니터링, 정책 제안 활동...10명으로 구성



화순군은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지역 단체·기관의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을 구성, 지난 7일까지 4일간 나드리노인복지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은 위원장을 선출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3개년 계획에 포함된 '8대 영역 48개 세부사업'을 3개 분과로 나눠 점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령친화도시의 개념,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경과, 올해부터 추진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3개년 계획을 공유하고 모니터단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상황 조사·점검 ▲고령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과 개선방안 발굴, 제안 ▲고령 친화적 지역문화 공감대 형성과 확산 활동을 할 계획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사회 복귀 지원 '경력이음바우처' 추진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 대상 20만 원 지급

담양군이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 여성의 조기 사회 복귀 유도를 위한 경력이음 바우처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담양군에 주소를 둔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으로 취업기관에 구직 등록한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바우처 카드는 취업 준비를 위한 도서 구입과 수강료, 면접 준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생애 1회에 한해 20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이며, 11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 담양군에 주소가 없거나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재정부지리 사업에 참여한 자는 제외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방콕탈출 #힐링타임
#안전한영화관람

함평 자동차극장

- GRAND OPEN -

1관 19:20~ 21:45~
2관 19:00~ 21:30~

**코로나19 걱정없이
매일저녁2회상영**

※ 매주 월요일 휴관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내

예매 www.hpcc.co.kr 문의 061)320-2225